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암상사께서 포덕 49(1908)년 1월 18일 의암성사로 부터 4세 대도주의 도통을 이어받으신, 제107주년 도일기념일 입니다.

춘암상사는 포덕 전 5년(1855) 2월 1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하포리 막동에서 태어나시어, 포덕 24(1883)년 동학에 입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춘암상사는 생업인 농사일을 더욱 더 성실히 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수행과 독공을 계속하였습니다. 묵묵히 수행 실천공행하는 도인의 풍모는 날이 갈수록 은은히 배어나와 춘암상사의 터전인 예산 일대 내포 지역에는 바다에 밀물이 드는 것처럼 동학 포덕의 물결이 크게 일었습니다.

포덕 29(1888)년 정월에는 해월신사의 뜻을 받들어 의암성사를 평생의 스승으로 받들기로 맹세하였으며, 포덕 34(1893)년 보은 장내리 취회 때에는 덕의포 대접주에 임명되어 ‘척양척왜’라는 큰 깃발(大旗)을 들고 교조신원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또

한 동학혁명 당시 내포지역 동학혁명을 영도하시면서 승전곡 전투를 큰 승리로 이끌어 동학군들의 사기 앙양에 큰 공적을 남기셨으며, 혁명의 대세가 꺾인 이후에는 해월신사와 의암성사를 보필하여 도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숨은 공로를 남기셨습니다.

해월신사 순도 이후 의암성사께서 일본에 망명하여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 할 수 있었던 것도 도의 기반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춘암상사의 도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고천하 이후에도 춘암상사는 의암성사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천도교를 3백만 대교단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춘암상사에게 주어진 교단 수호와 포덕광제의 과업을 위한 환경은 선사(先師)들께서 창도-은도-현도의 시대를 거치면서 겪어야 했던 도산검수의 시절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부터의 흑한의 탄압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교단 내부의 자시지벽(自是之癖)의 풍토와 인물상해(人物傷害) 속에서 내상(內傷)이 깊어질 때, 춘암상사의 마음은 어떠하였을지 헤아려 보아야겠습니다.

춘암상사께서 도통을 전수받은 포덕49(1908)년 1월 18일은

고행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한반도는 한두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세계사 모순의 최정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암성사께서 대도주직을 전수하신 것은 남은 신명을 다 바쳐 그 지구적 차원의 물결을 거슬러 아국운수를 건져 내고 보국안민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순도적 결행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단의 오만년 운수를 위하여 일찌 감치 장래를 춘암상사님께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춘암상사께서 만요불발(萬搖不拔)의 도력을 고집스럽게 발휘하시어 교단의 기틀을 고수하는 데 신명을 바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며, 우리가 뜨겁게 춘암상사의 대도주로서의 일생을 회고하고 추앙하며, 감사의 심정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천도교인 여러분!

오늘의 천도교는 춘암상사 시대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 일찍이 만사지(萬事知)는 식일완(食一碗)이라고 하신 것은 내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이기까지 한울님으로부터 우주의 만물을 더불어 인간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억 조의 생명들의 공덕이 함께하고 있음을 설파하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고마운 마음으로 행복한 가운데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시대야말로 후천개벽 세상이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비정규직화 되는 불안한 일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가속화되는 노령화 속에서 근심스런 노년의 삶, 연일 고공 행진하는 집값에 내몰리는 가장들... 낡는 불안과 공포 속에 밥 한 그릇을 편히 나누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환경, 윤리와 도덕의 피폐함은 모두 밥 한 그릇이 온전하지 못함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그 이유가 되는 악순환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으로 이 모든 난관을 뛰어 넘는 대 결단이 필요함에도, 내적인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괴로움이 더해 갑니다. 이렇게 사방이 막힌 시대에 사람들은 너나없이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기를 꿈꾸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갈구합니다만, 천도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 안지 못하여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어려움이 심화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요행수나 재치 넘치는 편법과 기발한 대책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도(正道)에 몸을 실어 자유자재(自由自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춘암상사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은 작은 것이요,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 더 큰 것입니다. 나아가 한울님을 속이는 것은 내 몸은 물론, 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망치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세상의 혼탁함은 기지(奇智)와 주장(主張)과 웅변(雄辯)이 넘치기 때문이니, 부지불식간에 자타와 한울을 속이는 거짓말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와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춘암상사가 우묵눌(愚默訥)의 화신으로 일이관지하신 연유를 헤아리고 헤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춘암상사님은 “성패와 득실은 진리에 맡겨 두고 결과를 짓는 데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진리, 그것 때문에 일생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성공이요, 진리가 아닌 성공은 영원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니 현명한 동덕들은 길이길이 인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아무리 편한 길이며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니, 참과 거짓 사이는 단지 생각과 말의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진리의 규구(規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천도교인 여러분!

오늘 제107주년 도일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모두 춘암상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다져 나가야겠습니다. 춘암상사는 “스승님을 숭모하되 스승님께 의존하지 말라.” 하신 의암성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모두 대신사요, 해월신사요, 의암성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교인)가 있으니 천도교는 오만년을 갈 것이다”라는 자신자법(自信自法)의 용력(勇力)을 발휘하여 교단의 앞길을 열어 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의암성사께서 3.1운동의 민족운동을 구상하시면서 교단의 장래를 위하여 춘암상사를 민족대표에서 배제하신 뜻을 충실히 되새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위하여 우리 교단은 양보와 타협이라는 큰 결단을 통해 세상 사람들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올해는 비상한 각오로써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지난해의 그 결단을 책임지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며, 다가올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의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분단 70주년을 통일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춘암상사께서 일생에 걸쳐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의 자세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또한 춘암상사님의 위력은 무엇보다 부단한 수련으로부터 비

롯데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역시 수련으로부터 출발하고, 수련으로 마감하는 신앙 풍토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는 겨울 기운이 한창이지만, 도도한 운수의 새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 만화방창하며 도래할 천도교의 새봄은 바로 춘암(春菴)상사님이 열어 주시는 봄입니다.

오늘 춘암상사님의 승통기념일을 맞이하는 뜻은 우리 모두가 춘암상사의 성령출세를 기원하며, 춘암상사의 일을 대신하고자 재사심정하는 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공경을 전합니다.

포덕 156(2015)년 1월 18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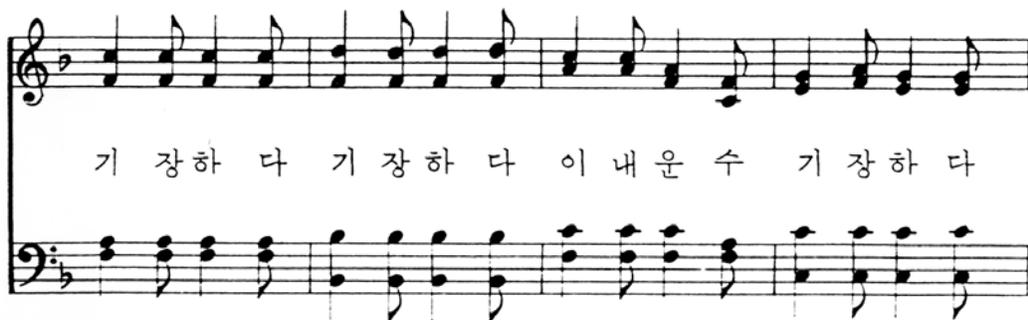
기 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중 을 시 고 중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중 을 시 고

도일기념가

Andante

1. 기쁘고 나오 늘은 도일기념 일 -
2. 기쁘고 나오 늘은 도일기념 일 -

춘암상사 승통하여 대도주되신 - 날
춘암상사 승통하여 대도주되신 - 날

스승님의 덕 - 화는 크고도 높 - 아 -
스승님의 도 - 품은 사해에 넘 - 쳐 -

우러러 보 - 아도 가 - 없 어 라 -
우러러 볼 - 수록 태산같 아 라 -

덕산의 맑은정기 천도의꽃 내 음 -
충의의 굳은기개사인여천향 내 음

멀 왜운 동영도하여 민족 - 구했 - 네 -
자 나 깨 나 팔십평생 대도 - 지켰 - 네

(후렴) 후천개벽 새 세상 이어주신 춘암상사님

우리도 그 - 정성 따르오리 - 다따르오리 - 다 -